

‘생명력’ 충만한 우리나라 불교예술 탐구

강우방 지음 《한국 불교조각의 흐름》

불교미술의 시대별 변천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한국 불교조각의 흐름》(대원사)이 미술사가 강우방씨(54,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실장)에 의해 저술돼 주목을 끌고 있다. 그동안 《원융과 조화》 《한국불교의 사리장엄》 《미의 순례》 《삼국시대 조각론》 《불사리장엄론》 등의 저서와 논문에서 우리나라 불교미술에 대한 꾸준한 탐구를 계속해왔던 강우방 실장이 이번에 그 결실이라 할 불교조각의 개설서를 펴내게 된 것.

전체 3부로 구성된 이 책에서 저자는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 불상에 대한 개별적 소개를 통해 불교조각 전체의 흐름과 문제점들을 거시적으로 보여주는(제2부 우리나라 불교조각의 흐름) 한편, 시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양식과 불상제작의 기법 등을 여러 측면에서 고찰(제3부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의 불교조각론)하고 있다. 특히 인도와 중국의 양식과 도상의 변화과정을 저자 나름의 방법론으로 정리해 종교미술의 본질과 불신관을 설명(제1부 종교미술론)하고 있어 20년에 걸친 저자의 불상연구의 총결산이라 할 만하다.

힘찬 기세의 고구려, 온화한 분위기의 백제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은 같은 문화적 기반 위에 성립됐지만 각기 다른 민족 구성과 풍토, 지정학적 조건에서 불교를 수용했고 그 결과 동질성과 동시에 지역적 특성을 그대로 나타낸다.

먼저 고구려의 불교조각으로는 통구 북부에 있는 장천 고분군의 〈장천 1호분 여래좌상 벽화〉는 5세기 중엽으로 추정되는 가장 오래된 고구려 불상이다. 이 고분 안 사방 벽과 천장에 가득한 불교적 주제는 당시 불교신앙이 고구려인의 생활 깊숙이 퍼져 있었음을 보여준다. 예배대상으로서의 불상조각은 6세기부터 활발했다. 고구려의 미술양식은 힘으로 충만된 양감과 자유분방함으로 능숙하게 표현된다. 〈금동 일월식 삼산관 사유상〉은 신체와 천의의 힘찬 기세 등으로 고구려의 특이한 형식과 특징을 보여준다.

7세기 초부터 도교의 수용으로 백제와 신라에 비해 불교가 성하지 않았지만 고구려 불교의 지력은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책에서는 삼국시대 불상의 명문 가운데 가장 체계적이며 구체적인 내용을 단정한 서체로 쓴 〈신묘명 금동 무량수삼존불〉의 광배 뒷면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은 같은 문화적 기반 위에 성립됐지만 각기 다른 민족 구성과 풍토에서 불교를 수용한 결과 동질성과 함께 지역적 특성을 그대로 나타낸다. 고구려는 힘으로 충만된 양감과 자유분방함, 백제는 세련되며 온화하고 정적인 분위기, 신라는 자유분방하고 치졸한 양식이 각각 특색으로 드러나 있다.

왼쪽부터 백제의 〈금동 삼산관 사유상〉 신라의 〈금동 사유상〉 고구려의 〈금동 일월식 삼산관 사유상〉. 고구려의 예각이 있고 힘찬 기세와 백제의 둥근 맛과 정적인 분위기, 신라의 파격적인 자세 등이 양식의 차이로 나타난다.

의 명문이라든가, 신체와 대의를 단순화시켜 뛰어난 예술적 의도를 보여주는 〈양평출토 금동여래입상〉, 수양식의 영향으로 생략과 단순화, 추상화의 경향을 보이는 〈서울 삼양동 출토 금동 관음보살입상〉 등을 개별 작품마다 시대적 정치적 배경과 함께 설명하고 있다.

백제의 미술양식은 엄정하고 세련되며 온화하고 정적이다. 저자는 이러한 양식의 특징이 그 지역 산세의 나지막하고 부드러운 능선, 온화한 기후 등의 풍토성과 깊은 연관을 갖고 있다고 파악한다.

한국이 중국에서 불교를 수용할 때 처음부터 받아들여 유행했던 도상은 ‘선정인좌상’인데 〈부여 신리 출토 금동제 선정인좌상〉은 5세기 후반의 꽤 이른 시기의 특징을 보여준다. 또 6세기 중엽의 〈부여 군수리 폐사지 출토 금동보살입상〉은 얼굴 눈매와 윤곽이 예리하게 조각돼 있고, 전체적으로는 특유의 온화함이 감도는 백제 초기 불상 가운데 가장 정교한 작품이다.

통일신라 문화의 새로운 양식

한편 고대 불교조각 가운데 신라작인가 백제작인가의 논란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금동 삼산관 사유상〉에 대해서 저자는 색다른 의견을 내놓는다. 우선 저자는 ‘대담한 생명력의 표출과 내적인 깊은 사유의 고요함’이라는 조형언어 해독으로 ‘기록’의 맹신을 경계한다. 즉 얼굴과 신체의 생명감 충만한 표현을 보여주는 〈금동 삼산관 사유상〉은 삼국 중 가장 세련되고 아름다운 예술을 꽃피운 백제의



작품일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이다.

신라는 삼국 중 가장 늦게 불교를 공인했다. 하지만 이미 민중 속에 불교는 널리 전파된 뒤라 급속한 발달을 보인다. 진흥왕은 영토를 넓히는 과정에서 승려를 동반했고 ‘순수비’를 통해 불법을 퍼려 했다. 신라는 정치적 종교적 적극성에 비해 대체로 불상조성 솜씨는 그리 뛰어나지 않은 듯하다. 〈속수사지 출토 금동 여래입상〉에서 보여지듯 얼굴과 신체 비례가 불균형하고 선과 투박한 양감 등 치졸하고 둔중한 미술양식을 보여준다. 〈금동 사유상〉은 얼굴을 너무 숙이거나 손바닥 전체로 뺨을 받치는 등 파격적인 자세와 도식적인 양식으로 신라의 특성을 잘 나타낸다.

국토가 확장되고 국력이 강성해지면서 신라는 중국과의 활발한 외교활동으로 수나라나 초당 양식의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신라 후기에는 특유의 자유분방하고 치졸한 양식이 완전히 사라지고 고전적 형태의 새로운 양식이 태동하게 된다.

680년 전후에 이르러 통일신라 문화의 새로운 면모를 구체적으로 나타내기 시작한다. 678년 경 사천왕사에서 출토된 사천왕상은 통일 초 불교미술의 실상을 보여준다. 저자는 사천왕사에서 수습된 파편들을 모두 조사, 복원도를 완성함으로써 흠집을 데 없는 사천왕의 생동감 있는 기법을 드러내보였다.

통일신라시대에는 약사여래상이 크게 유행했는데 미국 보스턴 박물관에 소장된 〈금동 약사여래입상〉은 얼굴과 신체 비례의 조화, 아름답고 화려한 조각, 절제미 등 통일신라

양식의 절정기를 대표하는 예이다. 통일신라 중엽부터 새로운 재료인 철제불이 제작되기 시작했고, 〈전 보원사지 발견 철불좌상〉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 철불이다.

세계미술사상 가장 위대한 작품 가운데 하나인 〈석굴암〉의 건축과 조각은 8세기 중엽 절정에 달했던 통일신라 불교미술의 치밀한 기하학적 설계와 뛰어난 건축 양식을 보여준다. 특히 〈석굴암 본존 석가여래좌상〉은 풍만한 신체, 당당한 자세, 간결하면서 힘있는 옷주름 등 완벽한 조각으로 불교문화권 중 가장 위대한 조각품으로 손색없다.

대중신앙 문제와 그 한국적 변용 추구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 불교조각의 흐름을 개별 작품 중심으로 살펴보면 저자는 다각적이고 통합적인 해석을 시도한다. 즉, 대중의 불교수용을 중시했으며 삼국 사이의 정치적 역학관계를 강조하고, 출토지를 절대적인 신뢰 기준으로 삼는 태도를 지양해 조형언어 해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인도와 중국의 양식을 국제적 관계 속에서 고찰하면서 ‘한국’의 독특한 생명력의 표현양식을 발견해낸다. 이 모든 것을 저자는 우리나라의 민족, 풍토적 조건과 작품 자체의 철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결국 저자는 대중의 예배 대상이던 불교조각을 탐구함으로써 우리의 대중 신앙 문제와 그의 한국적 변용을 추구하고 있는 셈이다.

대원사/A5신/444면/20,000원

—김지원 기자